

사슴 질병의 조기 발견

함 관 남

사슴은 일반가축과는 달리 아직 순치되지 않은 상태로 사육되고 있다. 때문에 사람에게 경계심을 풀지않아서, 주위에 인기척이 없거나 안전하다고 느껴질때야 비로소 평안한 자세로 무리를 지어 행동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관찰하지않으면 질병을 조기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슴은 야행성동물이기에 주로 밤에 먹이를 많이 먹고 있어, 상태를 관찰하기가 더욱 어렵지만 항시 시선을 떼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 면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때에따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을 필요가 있으므로 적당한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확실한 질병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이상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면 치료비 절감효과는 물론, 회복시간의 단축 및 회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1. 움직임의 이상

사육장에서 무리를 이루며 움직이던 사슴이 무리에서 쳐져서 홀로 침울하게서 있는 사슴을 보게된다. 이는 이상이 생겼다는 적신호이다.

예민한 동물인 사슴이, 외부의 자극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대부분 내부 장기 이

상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여 치료함이 마땅하다. 흙이나 나무조각, 혹은 철망을 핥는 사슴이 있는데 이는 비타민결핍이나, 무기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주의해야한다.

2. 자세의 이상

사슴은 계절에 따라 성질에 급격한 변화가 온다. 온순하던 숫사슴들이 고성과 난투로 각축전을 벌리는 시기는 발정기로 접어들면서다. 녹용의 형성기간이 지나고 벨벳이 벗겨지면서 발정이 시작할 때이다. 힘겨루기로 승자와 패자를 가려 하렘의 왕을 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칫 희생되는 사슴이 생기게 된다. 허리를 윗쪽으로 구부리고 영성하게 서 있는 사슴을 보게되는데 이는 외부의 충격으로 복부장기에 이상이 왔을 때다. 내부 장기의 출혈이나 복막염의 진행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사슴이 자세의 불완전으로 사람의 손에 잡힐만큼 행동이 둔화된 상태에이르면 예후는 불량한 것으로 생각해야한다.

사슴이 앞다리를 벌리고 거동하기를 싫어하면 창상성 심낭염이나 제 2위에 염증을 의심하고, 한 다리를 들고 뿔때 다리 하단부가 흔들거리거나 외부에 출혈한

상흔이 있으면 골절이 의심된다.

3. 영양상의 이상

사슴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뚜렷한 증세 없이 육안으로 보기에다 여윈 사슴이 있다. 이는 만성소모성질병인 만성소화불량이나 간에 이상이 있을 때이다. 또 위속에 기생충이 있거나, 평소 사양관리의 미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악성조사료 급여로 인해 위속에 조사료가 멍치거나, 피부를 활아 식모현상으로 인해 털이 위속에서 공처럼 멍쳐 소화를 장애하는 경우에 소화장애가 온다.

일반적으로 발육이 불량한 사슴은 사지가 유연하지 못하고, 뻣뻣하고, 근육이 위축된다. 이는 비타민 E 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미사슴이 비타민 E가 부족할 때 출산을 하게되면 새끼사슴이 눈이 멀거나 발육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년 1~2회 구충제를 복용시켜 기생충을 구제해주고, 비타민 E제를 공급해주면 증세는 호전된다.

4. 피부와 피모의 이상

흔히 사슴하면 다른 동물과 달리 피모에서 기름이 흐르듯하고, 손으로 만져보면 기름기가 묻어날 정도이다. 이처럼 털이 유지로 싸여 있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별다른 피해 없이 노지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슴들은 환모기가 아니면 거의 피모는 반질반질 윤이나며 털의 길이가 짧아 보이는 것이다.

털같이 계절이 아닐때의 털모증상은 심한 영양장애, 장내 기생충감염, 옥도, 수

은, 비소등의 중독증에서 발생할 수 있다. 피부 전반에 걸쳐서 탈모가 보이고, 피부가 두꺼워지며 주름이 생기면 부전각화증을 의심하고, 아연결핍이 원인일 수 있다. 음에 걸린 사슴은 국소적으로 탈모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어 비늘모양의 껍질이 덮히게되고 두꺼운 석면덩어리모양의 둥근 반점이 생긴다. 이때는 다른 사슴들과 격리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하여야 한다.

5. 배변의 이상

사슴을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일찍 사슴장에 들어가 밤사이의 배변을 관찰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점검은 배변의 상태가 과립형성이 고르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 과립이 윤기가 흐르며 반질반질한지, 거친지, 과립의 크기가 일정한지를 관찰하고 하루동안 급여할 조사료나 농후사료의 가감을 결정해야한다. 만일 과립이 크고 작고 불균형을 이루면 소화가 불량한 것이고, 연변 또는 설사를 하면 농후사료의 과급이나 건초 및 청초 농후사료의 변질이나 음료수의 오염이 원인이나, 주의 깊게 개체별 관찰이 필요하다. 사슴이 별다른 힘을 주지 않는데도 분변이 나오면 항문괄약근의 마비 또는 극심한 설사가 원인이다.

배변을 자주하면서 배변시 힘을 주지만 배변량은 소량이고 신선한 혈액과 점액이 섞일지는 직장염을 의심하고, 배변을 잘못하는 경우는 변비증이나 직장협착증의 심된다.

6. 배뇨의 이상

어린 사슴의 암수구별은 배뇨 모습으로 확인이 된다. 성록의 경우 힘을 주는데도 오줌을 질금질금 누는 것은 질, 요도, 방관의 염증이나, 반추동물에서 볼 수 있는 방광결석을 의심할 수 있으나, 수년에 걸친 임상경험으로 미루어 흔하지 않은 증상이다. 암사슴의 경우 난산시 난폭한 조산이나 산도의 손상으로 요도가 손상받아 배뇨시 곤란받는 사슴이 있다.

7. 호흡운동의 이상

사슴장을 방문할때마다 똑 같은 조건하에도 유난히 뛰어 호흡이 촉박해지는 사슴을 보게되는데 이는 질병이 아니고 개성과 주위환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슴은 전신 마취 또는 골격근이완제를 사용할시 치명적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사슴장을 개선하여 사슴에게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한 사슴은 호흡하는 방법이 가슴과 배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흉복식 호흡이다. 흉부에 통증이 있을때 복식호흡(배가죽을 한번 폼다 다시 오므렸다해서 횡경막의 신축에 의하는 호흡)을 한다. 사슴의 경우는 난폭한 절각작업시 나타나며, 발정기때 받은 피해로 급성늑막염에 걸리면 복식호흡을 하게된다.

흉식호흡(주로 늑골의 운동에 의하여 행해지는 호흡)을 할때는 복부에 통증이 있을 때이니 복막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호흡곤란이나 호흡촉박은 호흡기질병, 건

성 기침이나 비경주위 오염, 기관지 또는 폐렴등을 의심하고, 신장이상이나 심장이상, 독혈증이 있을 때도 호흡이상이 오게 된다.

8. 복부의 이상

자연방목상태의 사슴들은 새순이나 잔가지들을 자유로이 섭취하며 본능적으로 먹이조절을 할 수 있지만, 사육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먹이를 가감하기 때문에 고창증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한된 우리속에서 급여사료를 먹는 사정에 의해 많은 사슴들이 복부의 이상으로 단순성 고창증이나 포괄성고창증을 앓게된다. 단순고창증은 좌측 상경부가 팽대하며 보행을 기피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침을 흘리며 수시간 이내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킨다. 포괄성 고창증은 좌우가 균일하게 팽대한다. 발병한 사슴은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사람이 접근해도 도망가지않는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캐스를 배제하거나 제1위 절개수술로 이상발효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9. 되새김질과 삼키는 장애

가장 쉽게 사슴의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것은 되새김질을하고 있는지, 코끝에 윤기가 돌도록 습기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두가지에 이상이 없는 사슴은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입이나 목에 통증이 있거나 구내염, 인두염, 후두염, 치아의 이상, 턱뼈의 이상이 있을 때는 되새김질을 잘하지 못하게